

철학사

70 후설과 하이데거

(휘튼 대학 아서 홈즈 박사)

저는 니체의 지식과 진리에 대한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다양한 관점 사이의 다원주의를 여러 근본적인 감정적 경향의 연장선으로 보고, 궁극적으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권력 의지로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니체적 접근 방식이 현대 포스트모더니즘, 더 나아가 오늘날의 다원주의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상학, 특히 후설을 접하면서 알게 된 것은, 후설 역시 과학, 수학, 논리,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인간 지식에 확고한 토대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결함을 인간의 지식을 순전히 자연적인 과정으로만 설명하려는 자연주의와 자연주의 철학 탓으로 돌립니다.

심리학주의 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물론 니체는 심리학주의 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 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지식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가 비판하는 당대의 또 다른 경향은 앞서 언급했던 신칸트주의 철학자 빌헬름 딜타이의 작업입니다. 그는 철학적 세계관에 관심을 갖고 세계관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각각의 유형을 인간 심리의 특정 측면과 연결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 사고, 가치 지향적 사고, 경험적 사고를 중시하는 개인, 이 세 가지가 바로 야스퍼스가 진정한 인간 존재의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로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후설은 이러한 자연주의적 설명에서 또 다른 유형의 설명을 제시합니다. 즉, 그는 세계관을 인간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심리 유형으로 이해되는 인간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상대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 다시 말해, 후설이 추구하는 것은 새로운 기초주의의 새로운 토대가 아니라 보편적 토대입니다. 니체나 딜타이처럼 서로 다른 심리 유형으로 인한 차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인간 자아의 보편적 구조에 기반한 보편적 토대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가 제기하는 비판 중 하나는 데카르트 이후 사상을 지배해 온 주체-객체 이분법, 즉 사유에서 모든 주관적 영향으로부터 객체를 분리할 것을 요구하는 이분법이 매우 인위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 "나는 무언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 단순히 객체를 표상하는 것만으로는 지식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다"라는 행위는 주체의 행위이며, 바로 이 인간 주체성의 상실, 인간 정신에 대한 적절한

이해의 상실이 자연주의 철학의 병폐이자 자연주의의 실패의 근본 원인입니다.

후설이 원하는 것은, 말하자면, 인간 정신에 대한 과학, 또는 인간 의식에 대한 과학, 즉 '나'에 대한 과학입니다. 물론 데카르트가 시도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적어도 데카르트는 거기서 출발했죠. 하지만 후설은 데카르트로, 즉 코기토가 등장하는 보편적 회의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지만, 후설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데카르트의 판단 유보는 충분히 급진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데카르트는 의심할 여지가 있는 모든 것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지만, 곧바로 '나는 생각한다'에서 '나는 생각하는 존재다'라는 주장으로 비약했습니다. 그 짧은 인식의 순간, 그는 인간 주체를 완전히 떠나버렸고, 인간 의식의 보편성, 즉 '나는 안다' 속의 '나'에 대해 진정으로 탐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의 경험, 지식, 인간 의식의 모든 영역을 질서 있게 통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나서 초월적 자아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우리의 지각이 종합적으로 통일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후설은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찾은 듯합니다. 칸트가 초월적 자아, 초월적 자기라고 불렀던 것을, 순수이성비판의 이성심리학 부분에서 칸트는 데카르트가 '나', 즉 자아에 접근하려는 시도들을 논하고, 그러한 형이상학적 사변들이 충분한 근거를 갖지 못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도 읽고 개요를 작성하셨을 겁니다.)

후설은 데카르트의 실패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후설이 시도하는 것은 데카르트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 출발점에서 초월적 자아의 보편적 구조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결국, 보다 근본적인 출발점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소르본 대학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 그곳에서는 모두가 데카르트에게 경의를 표 해야 했습니다. 데카르트는 프랑스 철학의 수호성인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는 그곳에서 '데카르트적 성찰'로 알려진 강연을 했습니다.

데카르트적 성찰. 말 그대로 데카르트에서 시작하여 데카르트와 관련하여 자신의 방법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실제로 하는 일은 자신이 원하는 현상학적 방법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선, 괄호치기(bracketing)는 간단히 말해 판단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데카르트가 사유의 대상과 지각의 대상 모두에 대해 했던 방식과

유사합니다. 그는 때때로 '에파르키(eparchy)'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 회의주의자들이 판단 유보를 의미하는 용어였습니다. 즉, 괄호치기, 판단 유보, 에파르키(eparchy)입니다. 데카르트는 자신의 방법론의 일부로서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이러한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후설은 사물을 괄호로 묶을 때 사물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물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왜 우리가 사물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 더 확실한 지식을 갖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관심사입니다. 지식의 기초 말이죠. 그러니까 지식의 대상을 괄호로 묶는다는 것은, 특정 지식 조각들 사이의 변수들을 괄호로 묶는다는 의미입니다.

특정한 종류의 지식. 사실 그는 때때로 지식보다 의식을 훨씬 더 강조하며, 의식의 모든 대상을 포괄합니다. 명확하게 표현된 이해에 대한 의식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의식을 말합니다.

모든 의식 상태를 다룹니다. 그리고 그는 의식의 보편적인 구조에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개별적인 것, 모든 이론, 모든 해석은 배제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그는 초기에는 순전히 이론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해, 실용주의자들이 인간의 지식을 논할 때처럼 인간 존재의 실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후기에는 그러한 이론적 태도조차도, 즉 인위적인 것이라고 여겨 아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안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제가 아는 것이 제 전반적인 세계관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방식, 즉 제가 무엇을 알고 어떻게 아는지는 제 삶의 구성 요소입니다.

내가 살아온 세계. 그리고 그가 하려는 것은 세계에 대한 어떤 난해한 이론적 지식의 '나'가 아니라, 살아온 세계의 '나'에 접근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과학 이전의 의식에 대해 알고 있다.

이전의 의식, 즉 평범한 삶에 대한 나의 인식을 의미합니다.

후설의 이러한 행보는 그의 제자들이 ‘내가 아는 것’ 뿐 아니라 삶의 세계 속에서 ‘나’가 하는 모든 활동을 현상학적으로 기술하려는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하이데거와 같은 실존주의 현상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론적 과학적 태도를 잠시 접어두고, 이론 이전의 비이론적 토대에서 세계 안에 존재하는 ‘나’를 탐구하려는 바로 그 시점에서 후설의 사상에서 발전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겠습니다. 주체-객체 이분법으로 돌아가 보죠. 자연주의자는 후설이 말하는 의미의 주관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객체에만 집중하여, 그 지식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과학적 설명을 제시합니다.

반면에 대상을 배제하고 어떤 내성적인 방식으로 주체에만 집중하는 것은 오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세계, 현실에는 인식 대상 없이는 ‘내가 아는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연구하려는 것은 주체도 아니고, 데카르트가 말한 의미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유하는 존재, 확장된 존재입니다.

아니, 당신이 연구하려는 건 하이픈이에요. 네, 우리가 지식을 갖게 되는 근거가 되는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나는 무언가를 안다’, ‘알다’가 바로 하이픈이잖아요. 이해 되지요? 그렇다면 지식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그 보편적인 의식 구조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게 질문이에요.

하이데거가 우리의 존재, 설계, 말 그대로 ‘거기 있는 것’은 사적이고 고립된 존재, 즉 ‘나의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 존재하는 존재라고 말한 실존주의 철학에서도 같은 맥락이 드러납니다. 사르트르의 유명한 말,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닌 세상에 던져졌다는 말에서도 같은 맥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세상 안에 존재한다는 것, 즉 내면성 말입니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오류는 단순히 그의 회의론이 충분히 근본적이지 못했고, 괄호 안에 가두는 방식이 부족했으며, 더 깊이 파고들지 못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나’를 분리된 ‘나’로 생각했다는 점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세상이 있든 없든 ‘나’라는 존재만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는 명상록 6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정한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어쩌면 그저 ‘나’만을 생각하며 작업했을지도 모릅니다. 명상록 3편에서는 ‘신과 나’가 함께 등장합니다.

논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몸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나의 심신 관계와 당신의 심신 관계라는 관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는 식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인위적인 규칙입니다. 후설이 추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자아에 대한 이해입니다.

데카르트의 이론적 태도는 일단 접어 두어야 합니다. '나'를 구체적인 관계에서 분리해서 추상화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럼 하이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하이픈 같은 사소한 것에 대해서 말이죠.

후설이 강조하는 핵심이자, 그의 위대한 발견으로 여겨지는 것은 바로 의식의 의도성입니다. 의식의 의도성 말입니다. 여기서 '의도성'이라는 용어가 중세 후기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기억해 두십시오 .

이는 마음이 무언가를 알 때 갖는 의식적인 외부 참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 지각, 지식 및 기타 의식 상태는 목적론적 행위입니다. 행위는 대상을 지향합니다.

데카르트는 의식을 단순히 마음속에 관념을 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관념이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질문을 열어둡니다. 반면 후설은 인간 의식의 보편적 특징 중 하나이자 본질적인 요소로서, 의식은 항상 '무엇에 대한 의식'이라고 주장합니다.

의식, 생각, 아는 것. 그것은 항상 그것을 참조합니다. 그것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기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 미래를 기대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수업에 빠진 친구를 떠올리는 건 그 친구를 언급하는 겁니다.

늘 그렇죠. 때로는 반사적인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곱씹는 거죠 .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의식 행위의 본질입니다. 의식은 로크가 관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즉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묘사했던 것처럼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동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칸트에게 진 빚입니다. 칸트는 자아, 즉 의식적인 자아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는 경험의 형태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통합하는 능동적인 인식 주체로서의 자아입니다 . 그리고 경험을 초월하여 이해를 통합하는 범주들도 제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설이 언급하는 것은 바로 무언가를 행하는 의식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행할까요? 의도성이 행하는 바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의도성은 대상을 내게 현존하게 합니다.

사물이 문을 열어주듯 수동적으로 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제가, 말하자면,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거기에 대한 참조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바라보는 것. 제가 하는 일은 사물을 현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대상을 끌어들인다. 이것은 때때로 구성적 행위라고 불린다. 그렇다. 왜냐하면 인식 행위 속에서 나는 대상을 인식의 대상으로 구성하기 때문이다.

주어와 객체의 관계에서, 주어 없이는 객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주어의 객체가 아니라면 어떻게 객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객체 없이는 주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객체를 가질 주어가 없다면 어떻게 주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객체는 바로 나를 위한 객체, 즉 나를 구성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거의 칸트주의적이네요. 아는 행위 속에서 사물 그 자체가 나에게 사물이 되는 거죠. 아는 행위를 통해 나는 나 자신에게 사물을 구성하는 겁니다.

구성적인 측면 외에도, 그것은 구성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칸트에게 있어서처럼, 시간 형식이 이해를 도식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인식의 본질 자체가 전체적인 상황을 구성하고, 그것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겁니다.

단순히 개별 사물만이 아니라, 세계는 전체 장면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지식은 자기 참조적입니다. 마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모든 것이 저와 관련된 관계 속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당신의 관점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건설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이 표현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후설보다는 후대 학자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제하는 바는 인식 행위가 다른 어떤 역할을 하든, 내가 그것을 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점은 의도성과 그 지시성이 때때로 의미 행위라고 불리는데 , 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 "내가 말하는 건 너야"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지칭하는 대상도 너고, 내가 말하는 의도도 너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미의 한 가지 의미는 지시성, 즉 의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네, 좀 더 실존적인 관점에서 무의미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나에게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적 현상학에서는 의미 부여라는 개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사물들을 질서화하고 , 세상을 질서화하는 개념입니다 .

네, 의식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입니다. 의식은 표상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 대한 심상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은 표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즉 관념들이 그것을 나에게 있어서 그 자체로 규정짓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현이나 복사 이론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도성이 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후설에 대해 많이 읽다 보면, 그가 대부분의 에너지를 방법론을 개발하는데 쏟았고, 그 방법론을 다른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는 지나친 일반화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시간 의식의 현상학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시간 의식. 그리고 시간은 단순한 사유의 대상이 아니며, 대륙 이후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모든 의식을 통합하는 형태라면, 그것은 바로 내면적 감각을 기억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부 감각에 대해 갖는 관념조차도 내부 감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는 세상 전체가 시간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 그가 여기서 하려는 것은 바로 그 시간 의식에 대한 현상학을 탐구하는 것인데, 이는 칸트 철학의 핵심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의 초기 저서들, 예를 들어 『수학의 기초』와 『논리적 탐구』 같은 것들은 수학의 보편적 자아 구조에 기초를 두는 현상학적 시도였다. 다시 말해, 논리의 기초를 확립하려는 시도였다. 바로 논리의 기초 말이다.

사실, 칸트와 후설의 이 작은 책, 『현상학 그리고 철학의 위기』 에는 그의 에세이 두 편이 실려 있습니다 . 그중 하나는 「엄밀한 과학으로서의

철학」이라는 제목입니다. 그의 주장은 다른 어떤 과학도 과학적 방법론을 검증하는 근본적인 토대가 없기 때문에 엄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논리조차도, 수학조차도 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토대를 확립할 철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은, 음, 정식 명칭이 뭐였더라, '엄밀한 과학으로서의 철학'이었어. 어디 보자. 내가 적어놨었지.

적어 놨어요. 어디 보자. 네, 『유럽 과학의 위기』와 『초월적 현상학』이네요.

이제 그가 무엇을 노리는지 알 수 있겠죠. 이 위기는 제대로 된 근거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될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초월적 현상학, 그렇습니다. 초월적 자아의 현상학은 그러한 과정을 멈추고 적절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것이 후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고, 수많은 추종자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전체에 영감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었죠 . 제가 기억하기로는, 언제였더라? 아, 1960년대였던 것 같아요. 예일대학교에서 열린 현상학 및 실존철학회 모임에 참석했었어요 .

그리고 그 회의가 열리고 사람들이 회의장 로비에 서성거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그들과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고는,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거의 메시아적인 어조로 열광적으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작년보다 참여자 수가 늘었습니다. 우리가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종류의 것들이었죠. 마치 메시아적인 정신이 깃들어 있었는데, 그 열정 , 거의 종교적인 열정에 가까운 그 모습을 포착하는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보는 재미가 쏠쏠했죠.

자, 헤겔. 잠시 생각 좀 해 볼까요? 헤겔.

후설. 잠시 논평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꽤 명확하게 설명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 그는 하이데거 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니, 그의 책도 꼭 활용하세요. 자, 그럼 이제 후설에서 하이데거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이데거에게서는 초월적 현상학, 즉 초월적 자아의 현상학이 아니라 실존적 현상학, 존재의 현상학이 나타납니다. 하이데거는 더 이상 새로운 종류의 기초주의를 확립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건 그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후설의 문제는 괄호치기 과정이 결코 완료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초월적 자아 에서 이런저런 인식 대상의 증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포착하라. 하이데거는 후설에게 흄이 데카르트나 로크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하는 듯하다. 흄은 감각, 성찰, 그리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인식하는 모든 개별적인 관념들을 초월 하여 실체적인 영혼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에 흄은 "나는 어떤 관념 도 없이 나 자신을 포착한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 .

음, 마치 하이데거가 후설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 같네요. 목적어 없이는 하이픈을 절대 포착할 수 없어요. 목적어 없이는 의도 상태를 벌거벗은 채로 절대 포착할 수 없죠.

그래서 그는 엄격한 토대를 확립하는 방법, 즉 새로운 기초주의에 대한 하이데거의 낙관론과 결별해야 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저는 그 점에서 하이데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제를 배제하고 특정한 대상 에 대한 참조를 배제하려는 어떤 시도 도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상화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죠. 추상화에서 하이픈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추상적으로 사고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떠올리는 것의 본질은 언제나 구체적인 것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인 것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운 점은 의미 있는 상징적 언어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참조점이 없는 추상적 사고의 어려움에 있습니다. 후설이 하는 것과는 달리, 하이데거는 사물의 구조를 기술하는 이 현상학적 방법을 의식적 존재, 즉 인간 존재에 적용하여 인간 존재의 현상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후설의 방법은 단순히 괄호치기뿐 아니라 형상적 직관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직관적'이라는 말은 이념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이념은 플라톤이 형상 , 이상, 보편자, 본질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따라서 직관적 직관은 의식의 보편적 구조의 보편적 본질에 대한 즉각적인 자각을 의미합니다. 후설은 직관적 직관에서 발견하고 관찰하는 것, 예를 들어 의도성 같은 것을 기술하고자 했습니다.

하이데거가 하려는 것은 전지성을 뒷받침하는 보편적인 의식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 속성(existentialia) 이라고 불리는 보편적인 존재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실존적 속성 말입니다. 그는 대상의 범주, 즉 대상의 범주와 인간 주체의 실존적 속성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실존적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실존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주체가 처한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이픈은 인식 관계가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된 모든 실존적 속성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는 후설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동시에 다른 실존주의자들과도 문제를 제기한다.

니체 같은 사람들. 심지어 야스퍼스까지도. 그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하죠.

그들이 하는 일을 그는 단순히 '존재의 해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느끼는 방식, 우리가 존재를 경험하는 방식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를 밝히는 것이죠.

아, 그들은 진정한 존재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존재의 해명과 드러냄 말이죠. 다시 말해, 그들은 전통적인 철학적 활동을 모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 철학은 '존재'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단순히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았죠.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모든 존재의 근원에서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지 않아요? 존재의 근원에서요. 하이데거가 하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아, 그런데 이 모든 존재의 근원을 '존재(Sein)'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존재 그 자체. 나에게 있어서의 존재와는 구별되는. 존재 그 자체.

그리고 우리의 존재, 즉 세계 안에 있는 우리의 실재가 바로 다자인(Dasein)입니다. 그렇죠? 하이데거가 하려는 것은 다자인, 즉 세계 안에 있는 우리의 실재를 현상학적으로 기술하여 존재의 근거, 존재 그 자체, 존재의 근거가 우리의 다자인, 즉 세계 안에 있는 우리의 실재 속에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현존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세계 속 존재를 탐구함으로써 존재의 근거에 대한 어떤 이해, 어떤 인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그는 1929년에 출판된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남겼 습니다.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그는 당연히 형이상학은 다자인(Dasein)이 아니라 세인(Sein), 즉 존재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실존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 무가 아니라 유가 존재하는가? 좋은 질문입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존재하는 걸까? 그는 그 질문이 불리일으키는 실존적인 순간을 포착하려 한다. 마치 벼랑 끝, 끝없는 절벽 끝에 서서 아무것도 없는 것의 경계에서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존재하는 걸까?"라고 묻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어떻게 내가 무의 경계에서 있을 수 있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이다. 실존적인 질문, 두려움, 공포, 고뇌를 통해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묻는 것이다.

그의 다른 저서들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1927년에 출판된 그의 대표작은 『존재와 시간』입니다. 이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목해 보세요.

보시다시피, 존재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Sein und Seint 인 거죠. 자, 그는 분명 존재의 본질을 파헤치고 싶어하는 겁니다.

시간, 즉 우리 존재의 시간성, 이 세상에서 의식적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시간성이야말로 실존적 특성을 드러내고 자극하는 요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칸트 전통에서 시간은 우리의 의식적 존재를 구조화하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서 무엇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여기서 제가 "우리 존재에서 무엇이 드러나는가"라고 말할 때, 데카르트식으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그가 정신적 표상을 가지고 인과적 추론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 존재의 의식 속에서 존재의 근거를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거기에 무언가가 있을까요? 그가 묻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의 저서 『존재와 시간』에서 핵심적인 프로젝트는 설계의 현상학이었습니다.

실존적 개념, 즉 의식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보편적 구조를 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의 보편적인 측면들을 드러내는 구조들을 말이죠. 그는 프로젝트의 절반, 즉 시간성과 우리의 존재, 설계에 관한 1부만을 완성했습니다.

2부는 시간성과 존재 자체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제인은 결국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보통은 그가 이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며, 그래서 절반만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대략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령 존재 자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시간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구조일 수는 있지만, 존재 자체의 구조일까요? 게다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는 존재 자체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그는 보다 실존적인 방식, 즉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나, 철학이 등장하기 이전의 고대 그리스어와 같은 과학 이전, 철학 이전의 어휘로 거슬러 올라가 고대 그리스어에서 무언가 드러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온갖 흥미로운 어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진리의 본질에 대하여'라는 짧은 에세이에서 스스로에게 진리란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어원학적 접근 방식은 진리를 사유와 사물의 대응, 또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표현대로 사유와 사물의 적합성으로 보는 기존의 관점을 부정합니다. 그는 그리스어 '알레테이아'(aletheia)를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 '알파'(alpha)가 있고, 이 단어는 돌이나 바위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란 돌맹이가 하나도 없는 곳에 대해 뭔가 말하는 건가요? 네, 다시 말해서 돌맹이들을 모두 굴러 치우면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진리란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의 본질입니다. 즉, 나타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실존적 순간에 당신에게 나타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인 '진실의 순간'과 딱 들어맞네요. 진실의 순간.

보시다시피, 당신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진실의 순간에 스스로에게 자신의 본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제 존재와 시간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가 거기서 하는 몇 가지 중요한 행동들에 대해 몇 마디 해보겠습니다. 즉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다자인, 즉 세상 속의 존재, 의식적인 실존을 묘사하려 할 때, 필연적으로 '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그는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라는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라는 단어를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보편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나'라는 개념, 즉 '나'라는 연결어의 보편적인 차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건 개성이 아니라 보편성입니다. '나'는 보편적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게 이상하다고 말할 겁니다.

헤겔을 읽어봤다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헤겔의 철학에서 '나', 즉 개인은 보편자와 특수자의 종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논리에서 '특수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자'에서 '특수자'로, 그리고 '개인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구체화된 보편자, 헤겔이 말한 구체적 보편자입니다. 보편적인 가능성, 보편적인 특성이 개인 안에 구체화된 것이죠. 따라서 '나'는 보편적입니다.

제 생각에 이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상대주의, 다원주의 등에 대응하여 보편적인 기준점을 찾으려 할 때, 그가 말하는 것은 비록 개개인을 살펴볼 수는 있지만 모든 개인에게는 보편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편성은 단순히 개별적인 것들에 대한 경험적 일반화가 아닙니다.

개개인에게서 특정한 방식으로 구체화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것이 개별적인 것 안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 안에서 세상 속에서 존재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존재 자체의 특정한 발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체적 보편자이다. 그는 '사실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마치 이 세상에서 그저 하나의 사물, 하찮은 사실에 불과한 존재로 살아가는 경험을 묘사한다. 그는 '그'라는 용어를 손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자이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어떤 것이 단지 도구, 타인이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한 상태를 설명한다.

손과 제인은 마치 손에 잡히는 존재처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 그런 존재 방식은 명백히 진정성이 결여된 형태입니다.

그는 '실존성'이라는 용어를 인간 존재에 내재된 가능성을 가리키는 데 사용합니다. 인간 존재에 내재된 가능성, 즉 인간 존재 안에 담긴 존재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는 '상실' 과 '타락'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인간 존재가 수반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상실하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양심을 그러한 용어로 설명하며, '죽음에 이르는 존재' 라는 표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모든 의식에 의도성이 내재되어 있다면, 우리 자신의 존재,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의식은 다른 무엇보다도 죽음에 이르는 존재에 대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존재론적 특성이죠. 그는 미차인(mitzayn) 을 그러한 보편적 특징 중 하나로 언급합니다 .

미차인은 말 그대로 ' 함께 있음', '함께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네, 그건 혼자 있기 전의 상태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의식적 존재는 항상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정체성은 항상 타인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 (미차인) 그러나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이해와 언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이다 .

여기서 다시 한번 포스트모더니즘적 주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해란 우리가 디자인의 의미를 사물에 투영하는 방식입니다. 즉,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서 말이죠.

내가 어떤 사물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물을 내 나름의 이미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나만을 위한 사물로 만들고, 내 의미를 그 위에 투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어를 알고 사용하는 것은 모두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묻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생존하고, 존재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세상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당신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죠. 사물에 이름을 붙여 당신이 원하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리고 그 사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사물 자체에 대한 것보다 당신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내도록 함으로써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향한 탐구란 무엇일까요? 진리를 향한 탐구는 존재의 본질을 밝히려는 탐구입니다. 어떤 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본질을 밝히려 는 탐구입니다 .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내 존재 안에 드러나는 본질을 탐구하는 간접적인 방식일 뿐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고, 그 본질은 결국 내가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 등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포스트모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이러한 관점은 가다머가 그의 저서 『진리와 방법』에서 계승했는데, 이 책은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할 현상학적 해석학의 고전입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존 폴 사르트르에게서도 거의 같은 인식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읽고 계신 책에는 없지만, 하이데거와 마찬가지로 그의 더 큰 저서, 『존재와 시간』이 아니라 『존재와 무』라고 불리는 책에 나옵니다. 존재와 무. 자, 다음에는 사르트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르트르의 저서, 『자아의 초월』을 가져오시겠습니까? 부디 첫 번째 독서를 해보셨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도이고, 익숙해지려면 몇 번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